

보면서 눈물이 났던 기사

○○○

올해 초에 시사인에서 연재한 '아동 흠밥 보고서' 기사들은,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.
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정말 훌륭한 기사임.

이런 현실을 접하게 될 때마다, 사회주의에 대한 나의 신념과 믿음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더라.

개인들(식당 주인들)의 선의에 기대는 이 복지 시스템을,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확 바뀌야 될텐데, 한국 사회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다.

애플리 총리는 변호사 시절 자선 단체 일로 빈민가에 갔다가 그곳 아이들의 생활상을 목격한 뒤에 사회주의자가 되었고, 반면 대 처는 아동 우유 급식을 개악시켜서 '우유 도둑'이라는 비판을 강하게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, 애들 먹는 걸로 야박하게 구는 것이야 말로 정말 치졸한 행태이지.

2011년 무상급식 논란을 돌이켜보면, 오세훈은 지금까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고.